

#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이 고등학생의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Media Literacy and Self-esteem on Sexual Permissive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s

이규영, 송승훈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Gyu-Young Lee(queyoung@cau.ac.kr), Seung-Hun Song(ssh0510@hanmail.net)

## 요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7개 고등학교 6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경제상태, SML1, SE가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수용하는 미디어리터러시를 기르며, 가족과 연계하여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 중심어 : | 고등학생 | 성개방성 | 미디어리터러시 | 자아존중감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effect of media lieteracy and self-esteem on sexual permissiveness among high school student in order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The participants were 639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Kyeonggi, and Incheon in Korea. According to the regression analysis, sexual permissiveness was explained by sex, economic status, SML1, SE family. The results suggested that it is important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that focuses on enhancing media literacy and family-related self-esteem to raise the right sex attitude of adolescents.

■ keyword : | High School Students | Sexual Permissiveness | Media Literacy | Self-esteem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발달은 성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이 다양한 채널로 쉽게 그리고 걸러지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여 청소년

년 사회의 성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1]. 하지만 이 같은 미디어 속의 성 정보들은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불확실한 정보일 수 있어 올바른 성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다[2].

특히 성적 미디어와의 접촉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R1A2A2A01005995).

접수일자 : 2015년 07월 27일

수정일자 : 2015년 10월 05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0월 23일

교신저자 : 송승훈, e-mail : ssh0510@hanmail.net

도와의 관계를 검토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적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청소년들은 혼전 성교나 혼외 정사 등과 같은 성행동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5]. 또한 이러한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는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끼친다[6].

이러한 청소년의 건강문제에 미치는 미디어의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받는 것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다[7].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이나 연구자들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교육부[8]는 “학생들이 매스미디어의 특성, 사용되는 테크닉,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익히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영국의 미디어리터러시 연구의 권위자인 Buckingham[9]은 “미디어를 이용, 해석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미디어리터러시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1) 미디어에 접근하여 활용하는 능력, 2)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 3) 미디어를 이용하여 새로운 메시지를 발신하는 능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건강과 관련한 영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미디어 메시지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다. 미디어 메시지를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디어 정보의 악영향을 줄일 수 있다. 청소년의 건강에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는 Brown[10]은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면 미디어 메시지의 목적과 역할에 대하여 알게 되고, 미디어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어, 미디어가 조장하는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Bergsma and Carney[11]도 헬스프로모션 영역에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보고하며, 헬스프로모션 영역에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유효성에 대해 주장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도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의 평가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의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 관련한 미디어리터러시의 평가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7].

청소년의 건강행동과 관련한 중요한 개인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이 있다. 자아존중감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건전한 성격발달의 기본이 되며 성취에도 영향을 미쳐 인간이 궁극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필수 요건으로 여겨진다[12].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성취가능성이 높으며, 건강증진행위의 실행정도도 높아지게 된다[13]. 하지만 청소년의 개방적인 성태도와 관련하여서는 자아존중감과 성개방성과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14-16].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허용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성개방성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는 보고[13]도 있어 자아존중감과 성개방성과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이유 중의 하나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척도의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반영하는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다[17][18]. 특히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성행동을 포함한 청소년의 위험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21].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성개방성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개방적인 성태도와 관련하여 교육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인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춰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 특히 가족과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그들의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을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대상자는 임의 추출한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7개 고등학교의 학생으로, 각 학교의 학년별 한 반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74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639명(회수율 85.3%)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중간 효과 크기 .15, 요인 통계적 검정력 .95, 변수 개수 7개로 산정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53명으로 산정되어 본 연구는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은 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승인번호: 1041078-201408-HR-130-01)를 받은 후, 2014년 8월말부터 9월말까지 한 달간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자가 각 학교의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고, 성교육 담당 교사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연구에 강제로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점,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밝힘으로 대상자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였다. 대상자는 설문지의 동의서에 동의를 한 후 직접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학교별로 수집된 자료는 연구팀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으며 설문시간은 약 10-15분 정도 소요되었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22][23]를 참고로 하여

연구팀이 작성하였고, 연구팀을 포함하여 간호학 교수, 교육학 교수, 중, 고등학교의 관리자 및 보건교사, 가정교사 등 10명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그룹의 자문회의를 열어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최종 완성하였다.

#### 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년, 경제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 및 부모의 맞벌이, 학교성적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 2.2 성개방성

성개방성은 일본 성교육협회[22]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애정이 없어도 성교(섹스)를 하는 것', '돈이나 물건을 받고 성교(섹스)를 하는 것',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도 또 다른 사람과 성교(섹스)를 하는 것', '사귀지 얼마 안 되어 바로 성교(섹스)를 하는 것',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채점방식은 '아주 좋지 않다' 1점, '전혀 상관없다' 4점의 Likert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하여 개방적임을 의미하도록 함께 점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 Cronbach's  $\alpha$ 는 .787이었다.

#### 2.3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리터러시의 측정에는 Pinkleton 등[24]이 작성한 성에 대한 미디어리터러시(Sexual Media Literacy, SML)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미디어 속의 성적 묘사 장면을 좋아함(이하, SML1)' 5문항과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인식(이하, SML2)'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점방식은 3점 만점의 Likert방식으로 '그렇다'에는 3점, '보통이다'에는 2점, '아니다'에는 1점이었다. SML1는 '나는 미디어 속의 광고가 야하거나 스킨십이 많은 것이 좋다', '미디어 속의 섹시한 등장인물은 행복해 보인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 속의 성묘사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성묘사나 등장인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함께 점수를 산출

하였고, SML2는 ‘미디어는 십대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성행동은 청소년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미디어가 성에 대한 인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있어 Cronbach’s  $\alpha$ 는 SML1이 .736, SML2가 .705였다.

### 2.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Pope 등[25]이 개발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Song[23]의 도구를 사용하여,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하 SE가족)’과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각각 10문항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만점으로 ‘그렇다’에는 3점, ‘보통이다’에는 2점, ‘아니다’에는 1점의 Likert방식으로 채점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의 일원으로 느끼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변환하여 합계점수를 산출하였다. SE가족에는 ‘나는 가족 중에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매우 즐겁다’ 등의 문항이, SE신체에는 ‘나는 다른 친구들과만큼 키가 크면 좋겠다’, ‘나는 내 얼굴이나 외모가 싫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 있어 Cronbach’s  $\alpha$ 는 SE가족이 .862, SE신체가 .755였다.

###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의 차이는 t-test와 분산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성개방성과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학생이 44.8%, 여학생 55.2%로 여학생이 조금 많았으며, 학년은 1학년 34.9%, 2학년 34.4%, 3학년 30.7%로 3학년이 조금 적게 분포되었다. 대상자의 경제 상태를 보면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80.1%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학생이 95.6%,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는 학생은 62.1%였다. 학교 성적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2%,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3.1%,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36.3%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639)

변수	n(%)	
성별	남자	286(44.8)
	여자	353(55.2)
학년	고1	223(34.9)
	고2	220(34.4)
	고3	196(30.7)
경제상태	상	34(5.3)
	중	512(80.1)
	하	88(13.8)
부모와의 동거	예	611(95.6)
	아니오	24(3.8)
맞벌이	예	397(62.1)
	아니오	191(29.9)
학교성적	상	65(10.2)
	중	339(53.1)
	하	232(36.3)

표 2.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정도 (N=639)

변수	Mean±SD	Range
성개방성	7.81±2.78	5-20
미디어리터러시 (SML)	SML1	12.20±2.31
	SML2	4.55±1.23
자아존중감(SE)	가족	23.98±4.37
	신체	20.01±3.93

### 2.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정도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성개방성 점수는 20점 만점에 7.81점이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점수는

SML1의 점수가 15점 만점에 12.20점이었으며 SML2의 점수는 6점 만점에 4.55점이었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30점 만점에 SE가족의 점수가 23.98점, SE신체의 점수가 20.01점이었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성별과 경제상태였다. 남학생의 점수가 8.98점으로 여학생의 6.86점 보다 높았으며( $t=9.909, p<.001$ ), 경제상태가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점수가 9.06점으로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7.79점, '하'라고 응답한 학생의 7.56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F=3.799, p=.023$ ).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개방성 (N=639)

변수	Mean±SD	t/F Scheffe	p	효과 크기	
성별	남자	8.98±3.06	9.909	<.001	.81
	여자	6.86±2.11			
학년	고1	7.48±2.60	2.602	.075	.008
	고2	7.91±2.64			
	고3	8.08±3.10			
경제상태	상 <sup>a</sup>	9.06±3.27	3.799	.023	.012
	중 <sup>b</sup>	7.79±2.74			
	하 <sup>c</sup>	7.56±2.75			
부모와의 동거	예	7.79±2.77	-6.46	.519	.13
	아니오	8.17±3.10			
맞벌이	예	7.92±2.89	1.438	.151	.13
	아니오	7.57±2.52			
학교성적	상	8.17±2.64	1.398	.248	.004
	중	7.64±2.69			
	하	7.94±2.94			

4.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간의 상관관계를 결과는 [표 4]과 같다. 성개방성은

SML1( $r=-.449$ )과 SE가족( $r=-.189$ )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SML1은 SML2( $r=-.266$ )와 부적 상관을, SE가족( $r=.204$ )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SE가족과 SE신체 사이에는 정적상관( $r=.539$ )이 확인되었다.

표 4. 대상자의성개방성,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 중감 간의 상관관계

변수	성개방성	SML1	SML2	SE 가족	SE 신체
성개방성	1				
SML1	-.449 (.001)	1			
SML2	-.006 (.879)	-.266 (.001)	1		
SE가족	-.189 (.001)	.204 (.001)	-.005 (.900)	1	
SE신체	-.012 (.768)	.028 (.488)	-.029 (.463)	.539 (.001)	1

5.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일반적 특성 중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성별과 경제상태,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이 중 성별과 경제상태는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38.225, p<.001$ ),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032이어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공차한계가 .646~.866로 0.1보다 크고 분산팽창지수(VIF)도 1.154~1.548로 10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SML1( $\beta=-.369, p<.001$ ), 남학생( $\beta=.276, p<.001$ ), SE가족( $\beta=-.141, p=.001$ ), 경제상태 '하'에 비해 '중'( $\beta=.105, p=.008$ ), '상'( $\beta=.101, p=.012$ )의 순서로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SML1의 영

표 5. 대상자의 미디어리터러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

변수	B	SE	$\beta$	t	p	R <sup>2</sup>
상수	14.743	.912		16.165	<.001	.305
성별 (남자)	1.551	.206	.276	7.524	<.001	
경제상태(상)	1.254	.496	.101	2.528	.012	
경제상태(중)	.745	.281	.105	2.651	.008	
SML1	-.444	.046	-.369	-9.695	<.001	
SE가족	-.090	.027	-.141	-3.347	.001	

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30.5%였다.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 중에서 미디어 사용과 성행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수도권 지역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결과의 일반화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개방적 성태도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 특히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확인하여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개방성 점수는 20점 만점에 7.61점이었다. 이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8.05점이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청소년의 성개방성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한 것과 대체로 일치하나, 본 연구의 결과는 고등학생의 성개방성 점수를 50점 만점에 26.86점(100점 환산 53.72점)으로 보고한 김혜원[26]의 연구나 중학생의 성허용성 점수를 64점 만점에 32.43점(100점 환산 50.67점), 성태도 점수를 73점 만점에 34.7점(100점 환산 47.53점)으로 보고한 정선영 등[27]의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는 성개방성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달라 단순히 수치상의 데이터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성태도와 같이 다양한 정의와 측정도구가 존재하는 영역에 관한 연구에서는 먼저 용어나 개념의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23.98점,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20.01점이었다.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이규영과 송승훈[18]의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26.02점,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21.80점이었고,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Song[23]의 연구에서는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

이 21.73점, 신체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17.88점이었다. 본 연구 결과와 함께 생각해보면 두 자아존중감 모두 초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고 중학생의 점수가 가장 낮은 V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척도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일본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저하하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심리적 불안정과 함께 환경적 요인 등의 영향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다가 사춘기가 끝나는 10대 후반에는 점차 안정화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성별과 경제상황, SML1,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성태도는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에 비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8]. 이는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음란물 접촉[29][30]이나 성행동[31][32]의 경험이 많은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의 남녀차 등 청소년들이 서로의 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남녀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경제상황도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으로 부자일수록 성태도가 더 허용적이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4][30]. 경제상황이 청소년의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설은 우선 미디어의 성정보가 청소년의 성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정이 부유할수록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미디어 기기를 접할 확률이 높고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성정보에의 접촉이 많은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또 경제수준이 높고 10만원 이상의 일주일 평균 용돈을 받는 중학생의 성경험이 높다는 권석현[31]의 결과나 대학생으로 한 김수진 등[33]의 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중간인 집단보다 성행동이 많다는 결과를 고려하면 경제수준이 높은 집단이 성경험이 많고 그로 인해 성행동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두 선행연구에서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도 중간인 집단보다 성행동이 많았고, 성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고한 연구[26]나 경제수준과 성태도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28] 등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어 경제수준과 성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미디어리터러시와 관련하여서는 SML1이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디어 속의 성적 묘사 장면을 좋아하는 것이 성개방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디어 속의 성묘사를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성묘사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을수록 성개방성이 낮아졌다. 미디어의 성정보와의 접촉과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행동과의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3-5][20][23][29]. 하지만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단순히 성정보와의 접촉과 성태도, 성행동 사이의 관계만 검토했을 뿐, 어떤 과정을 거쳐 성정보에의 접촉이 성태도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이 과정의 해석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 즉, 미디어의 성정보에 반복적으로 접촉을 하면 그 정보에 대한 저항이 감소하고 친근함을 느끼게 되며, 미디어 속의 성관련 묘사 장면이나 그 속의 등장인물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34]. 그리고 점점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가 형성되어 결과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성정보를 접한 후 긍정적 이미지의 형성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선행연구[24]에 있어서도 미디어리터러시를 높이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성행동에 관한 이미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성적인 메시지를 덜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성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고, 성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낮았으며, 친구의 성행동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

반면, SML2는 성개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ML2가 성개방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

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가설로는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나타내는 특성 중의 하나인 '개인적 우화' 경향을 들 수 있다[35]. 즉, 청소년들은 미디어가 사람들의 행동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인식하고 있으나 자신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존중감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포함한 위험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중학생 466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Song 등[20]의 연구에 따르면, 1학년 때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성행동이 시작할 위험이 높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8-11학년 청소년 919명을 대상으로 한 Wild 등[21]의 연구에서도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흡연이나 음주, 자살기도, 성행동의 위험이 높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직접적으로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과 성에 대한 태도나 행동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단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은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 등에 의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가족관계와 관련한 연구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주희[3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는 성을 도구로 간주하고 성에 대해 허용적인 경향을 갖는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원활한 자녀는 성을 남녀 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고 성에 대한 책임감이 높았다.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Kawabata 등[19]은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이나 가족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동시에,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켜 친구나 미디어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쉽게 만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는 가정과 연계하여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미디어리터러시와 자아존중감이 성개방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개방성은 20점 만점에 7.61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미디어리터러시의 점수는 SML1의 점수가 18점 만점에 12.20점이었으며, SML2의 점수는 6점 만점에 4.55점이었다. 자아존중감 점수는 30점 만점에 SE가족의 점수가 23.98점, SE신체의 점수가 20.01점이었다.

둘째, 성개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경제상태, SML1, SE가족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30.5%였다. 즉, 남자일수록, 경제상태가 높을수록, 미디어의 성묘사 장면을 좋아할수록,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성개방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남녀의 성개방적 태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보다 효과적인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미디어의 성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리터러시와 가족과 연계하여 가족에 대한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언한다.

## 참고 문헌

- [1] 최정임, 정동훈, “스마트 폰을 통한 청소년의 성 관련 콘텐츠 노출 원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4호, pp.445-455, 2014.
- [2] 양야기, “고등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교육 요구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8권, 제3호, pp.159-169, 2012.
- [3] D. K. Braun-Courville and M. Roja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web sites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45, pp.156-162, 2009.
- [4] 오은선, *인터넷 음란물 노출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의 성지식, 성태도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5] J. Peter and P. M.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a sexualized media environment and their notion of women as sex obj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6, pp.639-660, 2006.
- [6] L. B. Whitbeck, K. A. Yodar, D. R. Hoyt, and R. D. Cogner,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A 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1, pp.934-947, 1999.
- [7] S. H. Song, *Basic research for development of the prevention program about junior high school students’ sexual behavior -focusing on development of life skills and media literac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be University, 2012.
- [8]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Media Literacy resource guide: Intermediate and senior divisions 1989*, Ontario Ministry of Education, 1989.
- [9] D. Buckingham, *Media education :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Blackwell Publishing Ltd., 2003.
- [10] J. D. Brown, “Media literacy has potential to improve adolescents’ heal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39, pp.459-460, 2006.
- [11] L. J. Bergsma and M. E. Carney, “Effectiveness of health-promoting media literacy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Health Education Research*, Vol.23, pp.522-542, 2008.
- [12] 장수현, 이성희,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친구집단 성태도와 성허용성,”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4호, pp.395-406, 2011.
- [13] 배경의, 강양희, “부산지역 남자 고등학생의 성태도, 성행동 및 자아존중감,” *부모·자녀건강학회지*, 제10권, 제1호, pp.36-47, 2009.



- [14] 신근화, 강명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성의식의 매개효과,” 인문과학연구, 제37권, pp.489-518, 2013.
- [15] 김홍규, 허은주, “대학생의 심리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와의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4호, pp.403-422, 2003.
- [16] 김경희, 박경숙, 김수강, “청소년의 성허용성 예측요인,” 기본간호학회지, 제9권, 제3호, pp.501-511, 2002.
- [17] 이은영, 탁영란, “청소년의 성차에 따른 자아존중감,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아동간호학회지, 제7권, 제4호, pp.474-482, 2001.
- [18] 이규영, 송승훈, “청소년들의 건강행태에 따른 라이프스킬(Life Skills) 수준 비교,”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6권, 제2호, pp.114-123, 2013.
- [19] T. Kawabata, T. Ishikawa, S. Katsuno, N. Nishoka, Y. Nozu, S. Shimai, and T. Haruki,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psychosocial variables including self-esteem-,” Japanese Journal of School Health, Vol.49, pp.335-347, 2005.
- [20] S. H. Song, T. Kawabata, Y. Imade, S. Tsujimoto, H. Nakamura, K. Hishida, M. Li, and C. Sakai, “Longitudinal study on sexual behavior and related factors among Japanese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psychosocial variables-,” Japanese Journal of School Health, Vol.54, pp.27-36, 2012.
- [21] L. G. Wild and A. J. Flisher, “Associations among adolescent risk behaviours and self-esteem in six domai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Vol.45, pp.1453-1467, 2004.
- [22] Japanese Association for Sex Education, *Sex among adolescent*, Shogakukan, 2013.
- [23] S. H. Song, *The effect of internet on adolescents' sexual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be University, 2009.
- [24] B. E. Pinkleton, E. W. Austin, M. Cohen, Y. C. Chen, and E. Fitzgerald, “Effects of a peer-led media literacy curriculum on adolescents'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sexual behavior and media portrayals of sex,” Health Communication, Vol.23, pp.462-472, 2008.
- [25] A. W. Pope, S. McHale, and W. E. Craighead, *Self-esteem enhancement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Pergamon Press, 1988.
- [26] 김혜원,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5권, 제2호, pp.309-328, 2003.
- [27] 정선영, 박현숙, 조금이, “중학생의 성행동 관련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4권, 제2호, pp.6330-6339, 2013.
- [28] 백혜정, 김은정, *청소년 성의식 및 행동 실태와 대처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29] 성미정, *청소년의 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30] 윤지영, *울산시 중학생의 음란매체 접촉 실태와 성지식·성태도·성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31] 권석현, 이정열, “중학생의 성관계 경험 영향요인: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를 이용하여,” 대한간호학회지, 제45권, 제1호, pp.76-83, 2015.
- [32] 이규영, 심인옥, “대학신입생들의 성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제34집, pp.159-182, 2013.
- [33] 김수진, 문승태, 강희순,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제20권, 제4호, pp.434-443, 2011.
- [34] R. B. Zajonc, “Attitudinal effects of mere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9, pp.1-27, 1968.
- [3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2014.

- [36] 김주희, 송은일, 강성희,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호, pp.111-124, 2003.

### 저자 소개

이 규 영(Gyu-Young Lee)

정회원



- 2005년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부교수로 재직 중

<관심분야> : 청소년 건강, 성교육 및 보건교육, 학교보건

송 승 훈(Seung-Hun Song)

정회원



- 2009년 3월 : 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석사)
- 2012년 3월 : 일본 고베대학교 대학원(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전임연구원

<관심분야> : 미디어리터러시, 라이프스킬, 청소년 건강